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20년도 제3호

“주님, 이 세상을 강복하시고,
우리의 육신에 건강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풍랑의 세력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28,5)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프란치스코 교황, 2020년 3월 27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온라인 기도회와
교황 강복 ‘우르비 엷 오르비’(Urbi et Orbi, 로마와 온 세상에)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계가 소리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십니다.
성체행렬을 거행하는 베너수엘라 산 크리스토팔 교구장 마리오 모르타 주교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은 평생 우리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련의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과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심으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경중을 울리는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의료적 처치와 기본 생계 지원과 마찬가지로 영적 동행 역시 ‘체계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ACN의 사업 협력자가 있는 많은 나라에서, 국가의 사회 기반 시설이 팬데믹 상황에 대처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려움에 부딪친 많은 사람이 본당과 수도원 시설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참담하게 붕괴한 이 시기에는 수녀들과 사제들을 위한 기초 생활비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ACN은 우리 교회의 충성스러운 딸과 아들이 그들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계 지원과 미사 예물을 전달하는 것이 지금 가장 절박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걱정해야 할 처지임을 알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비로운 후원에 의지할 수 있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실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 위기의 경제적, 사회적 결과들로 꽤 오랫동안 더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한, 가장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무의미하다면 이 작은 행성 위 어딘가에서 약하고 병들고 늙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에 누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수많은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감염 예방 조치들을 준수하고 허약한 사람들을 걱정하며, 의료 종사자들을 지원하고 가족과 친구들 간 교류를 자제하는 모습에서 보이는 거대한 연대와 결속을 통해 벌써 한 가지 의미가 반짝입니다. 이 비상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될수록, 그 영향을 느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 의미의 근본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인간성의 참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은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ACN의 활동도 세계적으로 곤궁한 상황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5천만 명 이상이 희생되고 많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을 겪은 2차 세계 대전 직후 베네프리트 신부님은 용기를 내 사람들에게 이웃과 원수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호소했습니다. 신부님은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에게 큰 희생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구원하시는 예

수님의 수난이 지금은 가난한 이와 난민, 박해받는 형제자매들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ACN의 시초적인 유명한 신문기고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에서 베네프리트 신부님은 마음이 냉담해지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압니까? 예의 바른 직장인들의 내면에서, 소시민들의 내면에서 전쟁 중에 어떻게 야수가 깨어났는지? 더 이상 예의는 없었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싸웠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지금은 따뜻하게 지냅니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후 시기의 어쩔 수 없는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보잘 것없는 사람들과 부르셨던 이들, 그들의 초라함 속에 당신의 광채를 감추고 계신 모든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울고 계심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ACN의 처음에 뚜렷이 드러났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어떤 고난이 있어도 후원을 계속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그들의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작은 자리를 한 칸 만들어 줍시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복을 보냅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ACN, 500만 유로 규모 코로나19 긴급구호기금 조성

베네수엘라 식탁 배급 현장

ACN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공동체를 보살피고 있는 세계 곳곳의 사제와 수녀들을 위해 500만 유로(약 65억 원) 규모의 긴급구호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고통에 직면하여, ACN은 특히 기본적인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봉헌 생활자와 수도자, 사제들을 지원합니다. 이들이 성사의식을 주관하고 신자들을 교육하며 환자와 노인들을 보살피고 수감자들을 찾아가는 등 영성과 사회 사목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ACN의 긴급구호기금은 사업 지원을 통하여 중동 지역은 물론, 중부 및 동유럽,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광범위하게 투입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물결이 거세지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느껴지면서 사회적, 영성적 돌봄에 대한 필요성도 급격히 제기되고 있습니다.”라고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은 코로나19 긴급구호기금 조성 배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긴급구호기금은 오로지 ACN 후원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며, 우리는 최전선에 우뚝 서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연민을 나누는 용기 있는 봉헌 생활자, 수도자, 사제들의 집을 덜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파괴적 영향력에 간신히 대처하고 있지만, 이미 빈곤하며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개발 도상국의 무수히 많은 공동체는 이 위기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 복지 사업을 지역 교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CN은 세상의 가장 취약한 공동체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는 용감하고 헌신적인 사제와 수녀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과 기도 안에서 함께합니다.” 하이네겔던 대표가 연대와 감사의 뜻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필요로 할지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이번 긴급 구호는 양동이 속 물 한 방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계의 가장 가난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특히 영성적 그리고 사목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우리는 교회가 제공하는 이 안전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거들어야 합니다. 저는,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형제자매들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시는 ACN의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그야말로 믿음을 살리는, 아름다움의 손길입니다.”

미사 예물 지원

위기가 우리를 결속시킵니다



인도 카푸친회 프란치스코 신부는 그리스도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인도의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한 곳인 타밀나두에서 그는 카푸친회 형제들과 함께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은”, 소명에 따라 충실히 봉사할 준비가 된 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신부는 이들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지만, 탁발 수도회 수도자로서 그가 가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의 감사”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프란치스코 신부와 동료 수사 신부 65명에게 전달된 미사 예물은, 이곳 신자들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봉헌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신부는 미사 중에 여러분의 지향을 위한 기도가 더 열렬히 바쳐질 것임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고통을 추구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밀나두에서 활동하는 카푸친회 수도자들의 모습은, 이 위기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보다 가까이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사 예물 지원

또한 우리의 사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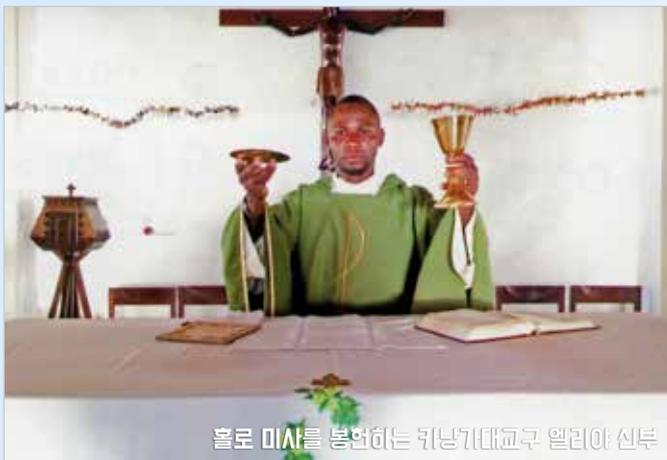
온라인 방송을 통한 우크라이나 교회의 미사 참여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 vivit).” ‘성사 중의 성사’, 성체성사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은 성체성사를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라고 칭합니다(11항 참조). 성체성사 없이는 그 무엇도 되지 않습니다. 성체성사가 하느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성체성사는 성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서품을 통해 축성된 손이 없으면 성체성사도 없고, 사제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사제들을 고립시켰고 교회와 우리 모두를 시험대에 세웠습니다. 사제들은 홀로, 또는 두세 명을 동반하고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거행합니다. 많은 나라의 하느님의 백성은 미디어를 통해 미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저 영적으로, 그리고 기도 안에서 사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신자들은 주일 미사에 참여할 때 열린 마음과 열정 이상의 것을 주님의 식탁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 가져옵니다. 생선과 계란을 가져오는 것은 흔한 일이며 사제를 위해 닭을 통째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사제들은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이농고교구와 카낭가대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료품이 없다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는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닭도 생선도 빵도 없고, 헌금도 없습니다. **두 교구장 도나티앵 주교와 마르셀 대주교는 이농고교구 사제 85명과 카낭가대교구 사제 168명을 위해 ACN에게 미사 예물을 요청했습니다.** 주교들의 큰 걱정인 ‘자신의’ 사제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한 ‘우리의’ 사제입니다. 사제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느님 앞에 바치며, 본당 사제의 수호성인 프랑스 아르스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의 말처럼 우리를 위해 “지상에서의 구원 사업”을 이어갑니다.

베네수엘라, 인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코로나 위기의 여파로 원래부터 힘든 처지인 많은 사제들이 인간적인 삶에서도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면담이나 의약품, 식량 지원으로 사람들을 도왔는데, 지금은 자신도 하루하루 어디에서 빵을 얻어야 할지 모르는 날이 많습니다. 사제들은 성품성사로부터, 또한 교회 전체를 위한 자신의 봉사와 보편적인 구원 사명을 우리가 이해하고 미사 예물을 통해 그들과 교회에 도움을 주러 달려올 것이라는 희망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홀로 미사를 봉헌하는 카낭가대교구 엘리야 신부



베네수엘라 인디오 원주민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자 생계 지원

“미소의 수녀들”



코로나 위기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기근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교회든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지만,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특별히 교회의 역할이 더 요구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교회가 실천하는 사랑의 봉사는 생존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수녀들을 위한 ACN의 생계 지원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 줍니다.

아르헨티나의 우마우아카 성직자치구는 극심한 빈곤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4개 공동체 출신의 수녀 10명이 여러 사목적, 인도주의적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ACN 생계 지원금 약 600만 원의 영향력은 수녀들이 노인 과 여성, 고아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보이고 느껴질 것입니다. 시골부터 도시까지, 여학생 기숙사부터 청소년 사목 활동 지역까지 어디에서나 말입니다. 클라렛회 수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성모자헌본당 교리교사 엑토르에 따르면,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는 ‘확신성’이 있습니다. 그는 클라렛회 설립자인 성 안

토니오 마리아 클라렛 주교의 말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희를 사랑으로 불타게 하소서. 그리고 이 사랑의 불꽃으로 저희가 가는 길에 불을 밝히게 하소서.”

이 사랑의 불꽃을 살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계 지원입니다. 또 다른 교리교사 낭시에게 수녀들은 ‘미소의 수녀들’입니다. 자신이 힘들어도 수녀들의 인내와 기쁨을 보고 고무되어 계속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심 없는 헌신으로 수녀들은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는 사랑의 모범을 보여 줍니다.

아르헨티나 말고도 여러분의 생계 지원 덕분에 불평 없이 고요하게,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코로나 시기의 고난과 싸우는 많은 수녀들이 있습니다. **페루 타크나 모케과 교구의 11개 공동체 출신 36명, 베네수엘라 라과이라 교구 수녀 48명이 그 사례이며, 중남미와 아프리카 다른 국가에도 수천 명이 있습니다.** 수녀들은 가난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가난한 이는 미소 짓는 수녀들의 얼굴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봅니다.

수도자 생계 지원

시편과 묵주기도로 인내합니다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나에게 응답하셨네.”



르완다 키갈리에 있는 부활의 딸들 수녀회는 날마다 시편 120장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마리아 로사 원장수녀는 편지에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시편과 매일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성체 조배 후 이어지는 묵주기도는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줍니다.” 아직까지 르완다의 여성 수도자 공동체 내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봉쇄 조치로 인하여 수녀들이 이동 진료소나 유치원에서 일하며 받을 수 있었던, 얼마 안 되는 일당이 모두 끊겼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나누던 약간의 비상금마저 다 떨어졌습니다. 사망에서 약탈과 살인, 불안과 공포의 소리를 듣습니다. 곤경에 처한 수녀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ACN은 총 57명의 수녀들에게 약 325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2020년 3월 27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온라인 기도회와 교황 강복 '우르비 엿 오르비'(Urbi et Orbi, 로마와 온 세상에) 중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길을 잃었습니다. 마치 복음의 제자들처럼 뜻하지 않게 만난 거센 돌풍으로 모두가 당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배에 타고 있으며 연약하고 길을 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를 젓고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중대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통공의 시간입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이자, 사랑의 통공의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로마 14,7) 바오로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시작하여 유럽을 거쳐 아메리카까지, 고속 촬영한 쓰나미처럼 고통이 ACN 후원자들이 계신 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사랑의 메아리’처럼 전 세계에서 고통의 소리가 되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사와 환자, 생명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렘베르그의 관상수도원에 있는 구속주회 수녀들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라예보의 가르멜회 수녀들과 공동으로 ACN의 모든 후원자를 향한 감사 편지를 전했습니다. “이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과 특별히 코로나 감염 환자들을 위해, 또한 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아이티의 잔해와 시리아 알레포의 폐허로부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글라라 수녀회와 나이지리아의 가르멜회 수녀들로부터, 가난한 인도와 곤궁에 처한 라틴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이처럼 모든 곳에서 위로와 영적 후원의 말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는 통공의 신비를 증거하며 바오로 사도가 전한 복음 말씀이 진리임을 알려 줍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1코린 12,26-27)”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리아 프란치스코회 수녀들

불가리아 소피아의 관상수도회 수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독하게 힘든 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몸입니다. 우리 수녀들은 세상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통해 행동하고 모든 지체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몸의 가슴이 되는 데 삶의 지향을 둡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도 혼자서 고통받거나 홀로 죽지 않습니다. 수녀들은 베렌프리트 신부가 일컫듯 ‘하느님을 위한 요새’ 안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후원자들과 그들 가족의 건강과 코로나19의 종식을 청하며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벨리키 비르키의 그리스 가톨릭 수녀원에서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통증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충격을 받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의사들을 위해. 그리고 팬데믹의 극복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님, 그들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티없으신 성모 마리아님, 그들을 보호하소서.”

ACN이 받는 수많은 편지와 전화, 이메일은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고통을 나누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세상을 감싸는 기도 사슬의 고리이며, 하느님의 포용이자 ‘하느님 사랑의 메아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물품은 이제 미사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애나 수녀

“왜 겁을 내느냐?”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으로” 소크라테스 비에가스 대주교
(필리핀 주교회의 의장·ACN 필리핀지부 이사장)

“베드로와 함께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이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언제나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폭풍우처럼 몰려온 바이러스로 인해 안전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마르 4,40)라고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던 때의 상황입니다. ACN은 수년 전부터 가난 속에서도 하느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몸짓들은 이 물으심에 대한 살아 있는 응답입니다. 가령 필리핀 성 가롤로 보로메오 수녀회 수녀들이 각자의 벽 뒤에서 격리되어 있는 가난한 가정에게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할 때, 인도에 있는 ‘그리스도교 소공동체들’(SCCs)이 주교, 부제들과 함께 거리에서 물과 마스크, 손 소독제를 나누어 줄 때가 그렇습니다. 병든 노인을 찾아가며 위로하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막달레나 수녀도 사랑의 봉사로 응답합니다. 종을 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기도로 신자들을 부르는 아이티 앙슈교구장 데시노르 장 주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웃 사랑의 모범입니까! 아이티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이티인 2명 중 1명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며 5명 중 4명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공공 생활은 정지 상태입니다. 전염병은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아이티를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소공동체들을 지도하는 크리스틴 조셉 수녀는 ‘코로나 시간’을 기획했습니다. “우리는 가정 기도를 도입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 온 가족이 모여 각자 자신의 집에서 전 세계 코로나19 희생자들과 연대하며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이 기도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사회적 안전장치를 보장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수중에 가진 얼마 안 되는 것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투명한 앞날을 바라보며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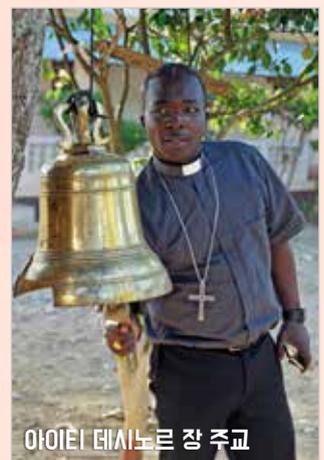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을 위해 사제로서 봉사를 다하다가 죽음에 이른 전 세계의 많은 성직자들도 이런 응답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배에서 두려움에 가득 차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 이후에는 서로의 믿음을 복돋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성모 마리아가 새로운 교회의 눈에 띄는 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믿음을 보여 주는 증인들은 눈에 띄지 않는 기둥인 우리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인도의 어려운 가정에게 마스크와 식료품을 전달하는 모습



우크라이나 막달레나 수녀



아이티 데시노르 장 주교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한 젊은 교회



“작고 젊고 가난합니다.”
주위와 먼 거리에 맞서는 아이슬란드 교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마르16,15)

선교는 한계를 모르지만, 자주 여러 문제와 맞닥뜨립니다. 선교 활동의 수호자인 리지외의 성녀 아기 예수의 데레사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씩이 틀 것인지 걱정하지 말고 선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지역과 교구 내 고유한 문제에 대처할 때, 이 수녀들의 행동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아이슬란드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언어입니다. 14,500명의 가톨릭 신자 가운데 2천 명만이 아이슬란드 출신이며, 나머지는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이주민입니다. 그로 인해 레이카비크 교회에서 강론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 됩니다. 사진과 파워포인트 자료가 없으면 강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먼 거리와 도로 사정입니다. 신자 가정과 본당이 수백 km씩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과 마타라의 동정녀 수도회 소속 수녀 6명은 연간 4~5만 km를 이동합니다. 아이슬란드 교회는 젊습니다. 장례미사가 한 번 있을 동안 세례성사는 5~6회 거행됩니다. 수녀들은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 교리교육과 어린이 돌봄을 담당하지만, 요양원과 병원에 있는 노인과 환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에 100km 이상을

다닐 때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섬 북부의 다른 두 개 본당에서 활동하는 예수 성심 가르멜회 수녀 6명의 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바로 만연해 있는 세속주의입니다. 특히 결혼과 가정 영역에서 윤리적 가치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혼인은 드문 행사이며, 유럽의 이 작은 섬 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64%는 혼외 출생자입니다. 아이슬란드는 한때 유럽에서 가장 먼저 낙태법을 통과시킨 나라 중 하나인데, 다른 국가의 낙태법과 비교해서도 엄격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공립 학교에서도 종교 교육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교육과 영성 생활이 이곳 사목 활동의 우선순위에 속합니다. 수녀들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몸과 영혼을 다 바치며, 이들의 순수한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은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그중에서도 사륜구동 자동차가 없으면, 수녀들의 선교 활동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아이슬란드 가톨릭 공동체는 젊지만 가난합니다. 수녀회 두 곳에서 튼튼한 중고차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ACN은 주님의 종과 마타라의 동정녀 수도회에 약 2150만 원, 예수 성심 가르멜 수녀회에 약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랑의 선교에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화산의 너리에서의 성지 순례.
사목 활동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성모상에 입을 맞추는 안티폴로 수녀



예수 성심 가르멜 수녀원, 성 루이 마르탱과 성 켈리 마르탱 부부의 유골함

복음의 바퀴를 굴릴 수 있도록

ACN은 과거에 유럽에서 생산한 화물차와 자동차들을 전 세계로 보냈습니다. ACN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현지의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버스, 보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ACN의 목표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에서 복음 전파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프란치스코 바스케스 고메스 신부는 키체 교구에서 큰 규모인, 신자 3만 명이 있는 과달루페의 성모 본당을 맡고 있습니다. 흔히 신자들이 사는 곳은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대입니다. 습도가 높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도로는 쉽게 진흙투성이가 됩니다. 사료구동 자동차가 고메스 신부와 그의 본당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1970년대까지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내전이 일어나 사제들과 교리교사 그리고 가톨릭 신자 모두가 참혹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정부군은 신자들을 반군 세력의 동조자로 간주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가까운 멕시코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지만, 이제 이 지역은 개신교의 여러 교파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인구 중 3분의 1 정도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프란치스코 신부는 신자들을 자주 만나야 하며 교리와 성사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그는 ACN에 픽업트럭 한 대 비용인 약 26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도 도로 상태가 엉망입니다. 콘타고라



다음 주일 미사를 향해 달리는 에티오피아 퀴니스 신부

대목구는 2020년 4월 2일에 교구로 승격되었는데, 스위스 국도와 맞먹는 지역을 관할합니다. 1천 km에 달하는 아스팔트 도로 위에 패인 구멍과 균열이 너무 많아서 시속 50km 이상으로는 달릴 수가 없으며, 다른 비포장도로는 시속 25km조차 힘겹습니다. 본당 19개에 마을 공동체가 1,000개가 넘는데, 그중 많은 곳이 황야의 외딴 곳에 있어서 자동차로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아프리카에서는 바로 이런 지역이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간 갈등의 온상지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한 해결책은 오토바이입니다. 콘타고라 교구장 불루스 다우와 요한나 주교는 ACN에 오토바이 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있으면 사제와 교리교사들이 더 자주 공동체를 찾아갈 수 있고 고립된 마을에도 성사의 은총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ACN은 소형 오토바이 10대를 살 수 있도록 약 65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호산나 대목구에도 오토바이 10대가 필요합니다. 2010년 설정된 호산나 대목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제들은 주일마다 최소 두 차례, 매년 다른 지역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공동체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도착하지 않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빌리는 일이 빈번한데, 대여비가 만만치 않아서 오토바이를 장만하는 편이 비용 측면에서도 더 저렴합니다. **ACN은 약 1950만 원을 지원하여 사제들이 비용을 절약하고 이곳 마을들에 새로운 힘과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진흙탕 길을 오르는 과테말라 사제



나이지리아 빈첸시오회 수녀들도 지원된 오토바이를 이용합니다

페달을 밟으며 유사종교에 맞서다



오브라 지 마리아를 이끌어 가는 젊은이들

‘체나콜로(다락방)’는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유사종교를 막는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브라질 체나콜로는 영적 공동체 ‘에이스 아이 투아 망이 - 오브라 지 마리아(Eis aí tua mãe - Obra de Maria: 여기 당신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 마리아의 사업)’와 함께 생겨났습니다. 체나콜로는 각 10명으로 구성된 한 가정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새롭게 더 깊이 공부합니다. 라틴아메리카는 믿음과 미신, 경건함과 환상이 뒤섞인 수많은 유사종교가 집단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 철저한 성경 공부와 이해, 가톨릭 생활 방식과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체나콜로에서는 이를 실천하고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마태 12,34)”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체나콜로는 브라질에 이미 6천 개가 있고 아

프리카에도 거의 3천 개가 있으며,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도 믿음을 새롭게 하는 자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브라 지 마리아’에 속한 인원은 2,800명에 달하는데, 비교적 젊은이가 주를 이루며 그중에는 사제와 수도자, 봉헌 생활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서와 성가책, 성경, 초 등을 챙겨서 자전거를 타고 다락방으로 갑니다. 이 모든 활동이 지금까지는 한 여행사의 수익으로 후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해당 여행사로부터의 후원이 어려워졌습니다. 각 모임을 이끄는 이들을 훈련하고 교리교사를 교육하며 교육 자료와 자전거, 오토바이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참된 복음을 위해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ACN은 자전거 100대와 오토바이 5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약 148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새 복음화 지원

예수 성심을 따르는 자비

“복음화는 교회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복음화의 역사입니다.” 근대의 모든 교황이 이를 확인했으며, 1979년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도 이처럼 말했습니다.



페루



볼리비아

이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은 복음화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이념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언제나 중심에 있습니다. **볼리비아** 뉴플로 데 차베스 대목구의 교리교사를 위한 5년짜리 교육 프로그램은 “예수 성심을 따르는 교회의 자비를 선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사목 위원회는 특히 시골에 살며 교육의 기회가 적은 평신도들을 위해 시청각 자료로 성경 강좌를 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모임과 피정도 예정되어 있으며, 기도 또한 교육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데스산맥 한가운데에 있는 **페루** 추키밤비아 성직 자치구는 지속적인 교리교사 양성의 틀 안에서 가정을 위한 작은 안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또 어떻게 읽으면 안 되는지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실천적인 조언이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유익하고 실용적인 성경 입문, 즉 새 복음화입니다. 이를 위해 **ACN은 볼리비아 뉴플로 데 차베스 대목구에 약 1200만 원, 페루 추키밤비아 성직 자치구에 약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그리스도인의 길

저는 스위스에서 청소년 사목을 맡은 주교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느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을 쉽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그 예로 우리에게 베렌프리트 판 슈트라텐 신부님을 길 안내자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 아버지처럼, 많은 사람이 신부님의 활동을 지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광범위한 소명을 발견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마음속 깊숙이 자신을 세상 끝까지 하나인 이 교회의 일원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ACN에 작은 감사

여기는 독일의 한 수녀원입니다. 발송인 없이 동봉된 지폐를 받아 시리아 지원을 위해 여러분께 보냅니다. 우리 수녀원을 건축할 때 베렌프리트 신부님이 여러 기능공분들과 함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ACN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스승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며 스승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도와 후원으로 돕는 모든 사람이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의 이 말씀에서 격려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ACN은 이처럼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겸손한 종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무언가를 주는 행위는 결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박해받는 형제자매에게

후원자인 저에게 주시는 친절함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후원을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그리스도인을 도울 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인류 가운데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상태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특히 가톨릭 신자들이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차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ACN의 사업에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가 되어

우리는 힘들고 황폐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사를 드리러 갈 수도 없고, 영성체를 통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도 없고, 고해성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애초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과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느님을 믿고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코로나 시대의 기도 요청

건강과 평화에 위협을 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섬리하실 것임을 알고, 우리의 삶에서, 또한 이 임무를 위해 예정해 두신 지도자들의 삶에서 풍요와 지혜의 원천이 하느님이심을 알고 사람들이 평안을 찾게 하소서.

영웅적 노력을 위해

후원금을 동봉합니다. ACN은 지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후원금이 전달되게끔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제 후원금은 이라크 도미니코회 수녀들의 사업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곳 사람들을 위한 수녀들의 영웅적 노력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토록 끔찍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께서 강복하소서.

사랑이 설명해 줍니다

“사랑이 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이 말씀이 교황청 재단 ACN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활동은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사랑의 활동입니다. 제가 그것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세계 곳곳으로 전해지는 한국 교회의 사랑

2020년 4월 5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제주교구 29개 본당에서 모은 사랑의 헌금(2차 헌금) 중 일부를 시리아 지원금으로 ACN에 보내 주셨습니다. 고통받는 교회를 기억하고 사랑과 연대를 보여 주신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님과 제주교구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5월 2일에는 서울대교구 절두산 순교성지와 등촌3동성당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절두산 순교성지에서는 2017년 9월부터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가 '고통받는 전 세계 가톨릭교회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ACN 후원 미사로 봉헌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중단되었던 미사가 제한된 인원이 참석하며 석 달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과 원종현 주임 신부님, 성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주교구 제공

서울 등촌3동성당

서울대교구 등촌3동성당에서도 제한된 인원으로 성모의 밤 행사를 진행하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가난한 나라의 교회와 신자들을 위하여 봉헌금을 모아 ACN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않고 사랑의 손길이 되어 주신 주수욱 주임 신부님과 본당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ACN 한국지부, 서울대교구 금호동성당에서 십자가의 길 예식 참여



서울 금호동성당

ACN 한국지부는 사순 시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4월 10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 서울대교구 금호동성당에서 ACN의 <현대 순교자들과 신앙의 증거자들을 기억하는 십자가의 길> 묵상집으로 십자가의 길 예식에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후, 주례 신부님만 예식 거행을 위하여 필요한 묵상글을 읽으며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본당 신자분들이 참석할 수 없었으나 집에서 각자 기도하며 연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도 ACN에 튼튼한 사랑의 다리가 되어 주신 하상진 주임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 읽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